

7 월 27 일 2025 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정병철 장료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참된 자랑 (약 1: 9-12) 이진수 목사
결단찬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목적이 있는 삶” (골로새서 2:1-5)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 장 10 절에 자신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가난하고, 배고프고, 적대시함을 받고 도망쳐 다니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잡혀 몰매를 당하여 죽을 뻔 했고, 몇 번이나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나쁜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평강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도는 삶,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쫓겨 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삶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만족함도 없고 늘 불안하며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 “어찌하여야 그 은혜를 내가 다 갚으리요” 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 그리고 사명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마음에 늘 여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언짢은 말과 행동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이겨 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삶은 풍성한 삶의 근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2:2-3 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삶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 영원한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전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월례회 - 오늘 예배 후 각 전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성찬식 - 8 월 3 일 첫주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전도회 성경공부 - 8 월 3 일 주일부터 예배 후

전도회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5. 단기선교 - 레이첼 자매가 Streamside

(streamsideglobal.org) 팀과 함께 7.14-8.2

필리핀과 한국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 목회자 동정 - 이진수 목사님은 북가주 침례교

목회자 수양회에 (7.28-30 세크라멘토)

참석합니다.

행사 및 모임

7 월	각 기관 월요회	7 월 27 일 (주일)
-----	----------	---------------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7/27	8/03	8/10	8/17
대표기도	정병철	유영민	손정임	차은희
헌화성도	김대성	이경숙	조정옥	성미숙
봉사당번	각기관 월례회	사랑구역	믿음구역	믿음구역

예배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설경 통독방	52 주

말과 기억력을 지혜롭게 다루기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이수관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나눕니다. 목회를 하면서 3 자 대면이라는 것을 서너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양자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할 때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말이 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명은 분명히 거짓말쟁이구나. 내가 거짓말쟁이를 밝혀 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3 자 대면을 해 보지만 한번도 만족한 결과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말과 기억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말에는 다섯 가지의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내가 원래 하려고 의도했던 말, 오리지널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대로 내 입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말쑤씨의 부족으로, 또는 당시 상황에 따른 압박으로 조금씩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제로 내 입에서 나간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말한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려고 했던 말과 입에서 나간 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자기가 말했다고 믿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새로 쌓이기를 반복합니다. 따라서 내가 A 라고 말했더라도, AA 라고 말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서 '내가 AA 라고 말했어' 라고 한번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억력이 왜곡이 되면서 본인이 AA 라고 얘기했다고 철썩 같이 믿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얘기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듣는 사람은 또 자신만의 필터를 가지고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A 라고 말했더라도 만약 이 사람이 Aa 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Aa 라고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사람이 실제로 들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의 기억력도 시간이 가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생각들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들을 통해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믿는 메시지가 다섯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본인의 기억력 왜곡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바뀌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쟁이를 찾아내겠다고 생각하며 불렀던 3 자 대면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끝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하고 상대방은 난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억과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후에는 제가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전해 들을 때, 일단은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고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면 '말이 의도치 않게 나왔을 거야,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말이 들려서 그에게 확인을 했을 때,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저는 진심으로 그의 말을 믿어 줍니다. 말에는 실수가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말이 입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때는 두 사람 말을 다 믿어주고 더 이상 그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합니다.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i>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i>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